

글 · 한국사료협회 홍성수 차장



2009년 사료산업 동향과 2010년 전망

들어가는 말

미국의 MSNBC는 최근 지난 10년간 10대 톱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 중 2008~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베이징 올림픽, 오바마대통령 당선을 3대 뉴스로 뽑은 적이 있다. 2002년, 2006~2007년에 발생한 사건과 이벤트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작년과 금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다사다난했단가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사건 및 경제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와 그 극복과정,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2008년말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사료원료의 해

외의존율이 75%(실질적으로는 95%)에 이르는 국내 사료산업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부상과 원자재 수요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의 암초로 작용하면서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재상승을 초래, 지난 2007년 곡물가격 폭등이 재연될 우려마저 감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稿에서는 지난 2009년의 사료산업을 돌아보고 2010년을 전망하면서 내년의 우리나라 사료산업과 축산업을 축약하는 사자성어가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국내 배합사료 생산동향 및 전망

먼저 2009년 배합사료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전년대비 강보합세(1.5%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이로써 지난 2007년 배합사료생산량이 최초로 1,600만톤을 돌파한 이래 안정적인 생산량 증가를 보여주

[2009년 배합사료 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2009.1-11(A)	2008.1-11(B)	전년비(A/B, %)
양계	4,081	3,925	104.0
양돈	4,824	4,828	99.9
낙농	1,191	1,250	95.3
비육	3,863	3,769	102.5
기타	960	922	104.1
계	14,919	14,694	101.5

※출처 : 농식품부 통계자료

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가축사육두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축사육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2월 사육두수가 전년 동월대비 육계는 3.7%, 산란계는 5.3%, 돼지는 3.8%, 한·육우는 7.9% 각각 증가하고 젓소만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금년에 AI와 같은 동물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외산 축산물의 전면개방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안착되면서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이에 따른 어린가축의 입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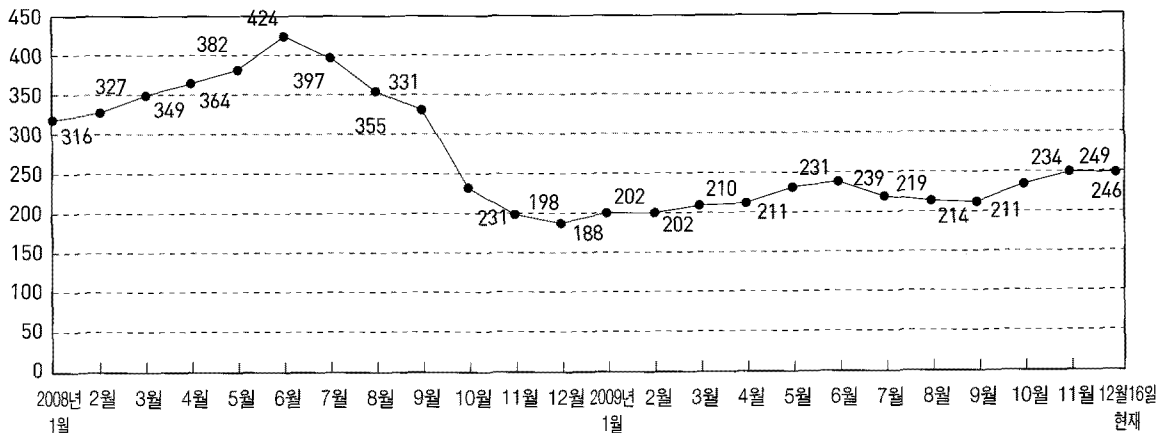
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0년은 그동안 실효되지 않았던 메가톤급 FTA의 발효/시행이 예상되는만큼 가축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된다면 금년과 같은 사육두수 및 배합사료 생산량 증가가 재현될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배합사료 가격동향 및 전망

농협을 제외한 배합사료업체는 지난 1년간 총 5차례

【그림 1. 최근 2년간 월별 사료용옥수수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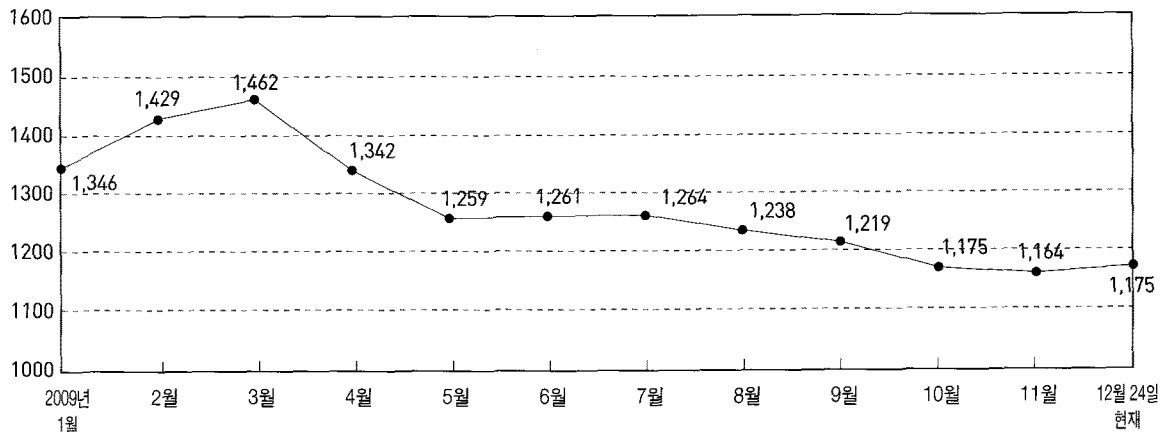
(단위 : C&F, US\$/MT)



※출처 : CBOT, 한국사료협회 조사팀

【그림 2. 2009년 월별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추이】

(단위 : 원)



※출처 : 한국은행

에 걸쳐 23.1%(산술평균)의 가격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배합사료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곡물가격과 해상운임,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실질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뼈를 깎는 원가절감을 통해 경영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지난 2년간 국제곡물가격은 <그림 1>과 같이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8년 12월에는 전고점 대비 55.7%까지 급락하였으나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안정과 미 달러화 가치 하락, 곡물수요 증가, 해상운임의 재상승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2010년에는 그동안 에너지와 금 등에 몰려있던 인덱스 펀드들이 곡물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가격의 급등 개연성마저 감돌고 있다.

또한 배합사료 원료의 해외 의존율이 7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또한 배합사료 가격의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림 2>와 같이 지난 3월 평균 1,462원(매매기준율)까지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의 안정과 외화 유동성 완화로 10월 이후 1,150원~1,180원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점은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환율전망 또한 주요기관들은 1,100~1,200원대를 예견하고 있는 바 고곡가 시대의 도레가 전망

되는 2010년에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맺는말

미증유의 금융위기 발생과 그 극복과정, 특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국내 사료산업의 위기와 회복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전년에 이어 국내 배합사료산업은 발전을 지속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2010년 사료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결코 낙관적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07~2008년 중반까지의 사료산업을 옥죄었던 고곡가가 재연될 수도 있고, 특히 한미 FTA의 비준, 최고의 축산선진국 연합인 EU와의 FTA발효, 중국에 이어 제2의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CEPA체결 등 대외개방의 속도가 가중될수록 여전히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축산업과 그 후방산업인 사료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료산업은 이미 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초유의 사태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기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자원개발, 원자재의 적기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앞장섬으로써 국내 축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국민경제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